

규제 비웃듯 주담대 눈덩이... 당국, 정책금융 규모 손보나

가계대출 한 달 새 3.6조 ↑
부동산 거래 심리 살아나자
주담대 잔액만 3.8조 늘어
DRS 규제 내실화 효과 미미



부동산 매수 심리가 높아지면서 주담대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으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급증세가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해 가계부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정책금융 상품 축소와 전세대출 규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지난달(708조5723억원) 대비 3조6118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555조9517억원)은 지난달(552조1526억원) 대비 3조7991억원

늘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많았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심리가 되살아났고,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출 부담이 줄어든 점이 주담대 급증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미뤄지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겹쳤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DSR 규제 내실화를 꼽았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 제도 시행으로 가계부채 고삐를 당겼지만 효과는 없었

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22조2604억원 급증했다.

월별 증가폭은 ▲1월 4조4329억원 ▲2월 2조7713억원 ▲3월 -4494억원 ▲4월 4조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3월을 제외하곤 매월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금융권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DSR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가계대출은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또 다시 DSR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정책 기조가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가계부채는 DSR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

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유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분까지 DSR에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전셋값 상승과 집값 상승 등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상품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수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DSR 내실화 강화만 외치는 것이 아닌 가계부채 감소라는 결과를 증명할 때"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코인거래소 보험에 항공지연 보장까지... 新시장 개척 나선 손보사

가상자산법 시행에 준비금 적립 필요
삼성화재 업계 첫 가상자산보험 선포

보험개발원 제공 참조순보험료율 바탕
8~9월 항공기 지연 보험도 선보일 듯

손해보험업계가 새로운 보험 상품 영역에 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처음으로 선보인데 이어 오는 8~9월에는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을 보장하는 국내 1호 지수형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여만에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및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거래소는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오는 19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소멸성이므로 보험료가 아깝거나 준비금을 쌓을 수 있는 거래소는 보험가입을 주저하겠지만 준비금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보험을 선보였고 지난 12일 코인마켓 거래소 중 '비블록'을 1

호 가입자로 받았다. 보장개시일은 19일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타 보험사 대비 가상자산보험 시장에 대한 시장성을 확인했다"며 "의무보험인 가상자산보험에 대해 상품·영업 관련 시장 준비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 역시 지난 16일 삼성화재에 이어 두번째로 가상자산보험을 출시했고 타 손보사들도 속속 상품을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자산보험에 대해 업계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리스크 발생에 대한 우려에서다. 이에 앞서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상품 개발과 보험료 산출을 위한 요율 산정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예

상하기 힘든 위험률이 있으므로 코리안리에서 요율 산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재보험사의 출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요율을 얼마만큼 책정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지연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보험에 이어 손보사들은 오는 8~9월 국내 1호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2일 국내 첫 지수형 보험인 '항공기 지연 보험' 참조순보험료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지표를 사전에 정해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는 과정이 번거로웠다. 가입자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

사는 이를 재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이 도입되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항공기 지연 정보가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4만원,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손보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오는 8~9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동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수형 보험에 대해 특약 형태로 개발이 이뤄져 순차적으로 상품에 탑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80% 육박... 집중호우에 악화 우려

4대 보험사 車보험 손해율 79.5%
긴 장마에 침수 피해車 늘어 '비상'
손해율 상승 땀 보험료 상승 불가피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 서울 서초구 잠수교가 전면통제된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에서 관계자들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차량 피해가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집계됐다. 1년 전(77.2%)과 비교해 2.3%포인트(p) 올랐다.

7개 보험사로 확대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1%로 전년 동기

82.1% 등은 손해율 80%를 넘어섰다. DB손해보험이 78.7%로 가장 낮았고 이어 메리츠화재 78.8%, 삼성화재 79.2%, KB손해보험 79.4% 순이었다. 문제는 올해 7~8월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 손해율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3549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319억7400만원이다. 지난해 6~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2395대, 175억원을 올해는 3주만에 벌써 크게 웃돌았다.

업계는 하반기 손해율이 상승하면 향후 자동차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형 기자

금융위, 올 2분기 공적자금 72% 회수

지난해 말 대비 0.5%p 증가
예보 배당금으로 2145억 회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약 71.9%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회수한 공적자금은 5960억원으로, 지난 1997년부터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71.9%로 지난해 말(71.4%)와 비교해 0.5% 포인트(p) 증가했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대신 예금을 지급해주기 위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대주는 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

증채권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I 을 조성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자금 II 를 조성했다. 현재 공적자금 II 는 종료된 상태다.

이번에 회수된 금액은 금융사 구조조정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1955억원, 한화생명에서 130억원, 우리금융지주에서 60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총 2145억원의 공적자금이 예금보험공사의 배당금으로 회수됐다는 설명이다.

나머지는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국책은행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배당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은행 1578억원, 산업은행 1855억원, 수출입은행 330억원 등 총 375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나유리 기자 yu115@